“방사능 제거 작업 계속하지만, 사람 살 수 있을지 걱정태산”

에너지 위기

탈핵·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

⑤ 원전 위기 日 현장을 가다

-폭발사고 후쿠시마현

쓰나미로 방파제가 파괴되면서 폐허가 된 미나미소마시 해안가 전경.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고 있지만 해안가 뒤편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가동중이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일본은 당시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쓰나미의 상흔은 거의 지웠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공포는 여전했으며 피해지역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23일 찾은 후쿠시마현에서 만난 현지 주민은 “후쿠시마가 일상의 상태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방사능 공포 때문에 마을로 복귀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후쿠시마 원전(후타바마치) 쪽으로 접근할수록 제염(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하는 중장비와 대형트럭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리한 제염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란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제염 작업을 수주한 회사 대부분이 일본 굴지의 건설업체라는 것. 이 회사들은 원전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원전을 지으며 배를 불린 대형 건설업체들이 제염 작업도 도맡으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쓰나미와 원전 폭발사고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은 각종 수치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후쿠시마현 주민 가운데 아직까지 피난 생활을 하는 이는 15만명이 넘는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은 끊임없이 후쿠시마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부흥대책으로 일부 주민들이 복귀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쿠시마현은 이 같은 추세로 유출이 계속되면 2011년 10월 198만9000명이던 주민이 2040년에는 122만5000명으로 최대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쓰나미와 원전 폭발사고로 발생한 폐기물 366만t 중 처리된 양은 145만t(40%)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방사능 유출사고의 복구 작업은 더욱 더디다. 각 지자체는 19만9000여 주택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작업을 마친 주택은 20%에 그치고 있다.

19만9000여 주택 대상 제염 작업 겨우 20% 마쳐 피난 생활 언제 끝날지…

정부·지자체 부흥대책 불구 꺼지지 않는 방사능 공포 여전 주민·피난민들 집단소송 제기

이와관련 주민과 피난민 등 1700여명은 지난 3월 일본 정부와 원전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600억원대 집단소송을 후쿠시마 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방사선량을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릴 때까지 위자료, 피난 실비, 휴업 손해배상 명목으로 매달 1인당 5만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청구금액은 53억6,000만엔(610억여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되살리려는 다양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지난해 신설한 부흥청을 중심으로 ▲제염 작업을 통한 환경회복 ▲피난민 지원 등 생활 재건 ▲중소기업 등 부흥 ▲농림·수산업 재생에 목표를 두고 부흥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나미소마시는 쓰나미 피해지 2.4ha에 연간 32t의 양상추를 생산하는 식물공장과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미나미소마 솔라 농업파크’ 건설에 나서는 등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와라자키 후쿠시마현 홍보담당은 “부흥정책이 성과를 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일어 났으면 한다”고 바랐다.

하지만 문제는 제염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재민의 피난생활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며 꺼지지 않은 원전의 공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원전 폭발 사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젠 마스크를 쓰고 다닌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잠재적 핵폭탄’으로 불리는 사고 원전에선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또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 출신으로 후쿠시마시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주민(62)은 “제염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제염이 될지 걱정”이라며 “이 상태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오염수 지금도 유출

■ 폭발사고 후쿠시마 원전 현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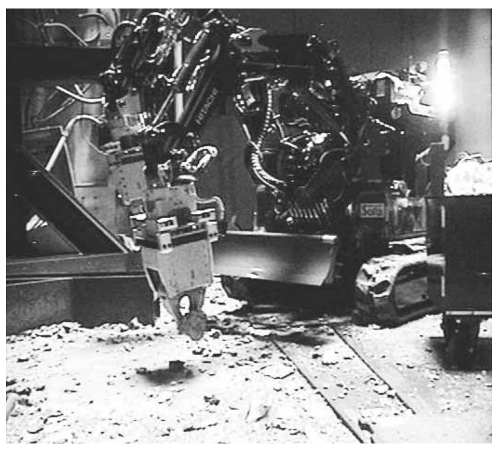
일본은 물론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 넣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전에서는 여전히 치명적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오고 있고 오염수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취재가 진행된 지난 24일에도 일본 NTV 등 현지 언론에는 “지난 18일부터 원전에서 수증기가 목격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주변에서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에 이르는 초고농도 방사능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5월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 내린 뒤 불과 두 달 뒤에 측정된 방사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호복장을 입은 작업원들도 8분 이상 일하기 힘들 만큼 치명적인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폐쇄한다는 목표로 건물 잔해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나 방사능 위험 때문에 작업이 더딘 상태다. 특히 노심용해된 연료봉 회수작업은 방사선량이 치명적이어서 현재로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도쿄전력은 현재 4호기의 저장수조에 남은 폐연료봉을 꺼내기 위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말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녹아버린 연료봉을 처리하고 폐로하는데 까지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사고로 오염이 심각한 원전 3호기 내에서 원격조작로봇(ASTACO-SoRa)이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쿄전력제공〉

하루 400t씩 불어나는 방사성물질 오염수도 골칫거리다. 1~4호기 주변의 오염수는 현재 36만여t으로, 25m 크기 수영장 500개 분량에 달한다.

도쿄전력은 2015년까지 70만t 분량의 물탱크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내륙 쪽의 지하수가 원전부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물을 파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화시킬 방법이 없는 오염수의 바다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의 책임까지 떠 안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담양군 월산면 공장 대지 4882㎡(1477)건평 150평 대출 2억 법인이전함. 2억 7천만원
- 계림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 (164)건평 3968㎡(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과 유흥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 (124)건평 327㎡ (99) 공시지가 2억 8200 매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 (97)건물 1235㎡ (363) 건물 2동 공시지가 14억 5천 매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원룸,투룸,대지 508㎡ (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소방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 (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가에 매도 11억 6천
- 북구 도로변 대지 624㎡ (189) 건물 421평. 병원,사옥등 적합 은행 12억 매도 13억 5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매도 13억
- 신창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옥,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매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의가능 매도 8억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6천 매도 2억 3천
- 함평군 월야면 13024평 전원주택개발적합 6억 8천
- 두암동 2종주거지 47평 대출 5천 매도 6천
- 광주와 담양읍 사이 4차선 국도접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남 대출 10억 매도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태영부동산공인중개사

★매 매★

* 영암 도포면 성산리(야산) 임야44,470㎡ 계획관리지역 (과수원,전 개간적합)매매가4억원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접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1576㎡ 매매가11억원(병원적합)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 ㎡당 4천5백원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나대지 407㎡ 3억 2천만원 (고시텔, 원룸신축적합)
* 화순읍 훈리 공간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 임대 2,3층 주택4곳임대 (융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3억7천만원

★임 대★

* 동구 운림동 증심사 버스종점 아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호프 198㎡ 룸완비 보증금3천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룸6개 (큼) 현성업중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성업중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만원 시비권있음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접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없음 (식당적합, 모든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 가 주 택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광산구 운남동 2종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 440㎡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 독 주 택

▷서구 화정동 2종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광산구 송정동 2종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 장 및 창 고

▷광산구 지죽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 지 매 매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완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장례예식장, 투자최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